

버티는 수리업·사라지는 기술자…산업 기반 ‘흔들’

전남광주 종사자 5년새 1380명 감소…숙련 인력 부족
“청년 교육·지원체계 마련…생활·산업현장 지탱해야”

전남광주지역에서 수리·정비와 관련 된 기술 인력들이 사라지고 있다.

가전제품 수리점, 자동차 정비업체, 농 기계 수리공, 산업 현장의 설비 유지보수 기술자까지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곳곳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에도 고장 난 제품과 설비를 복구하는 수리 서비스 수요 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 내부에 서는 겉으로 드러난 안정적인 시장 규모 뒤에 성장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남광주지 역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사업체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종사자 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사업체 수는 7296개, 종 사자 수는 1만6293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사업체 수 7165개, 종사자 수 1만 4913명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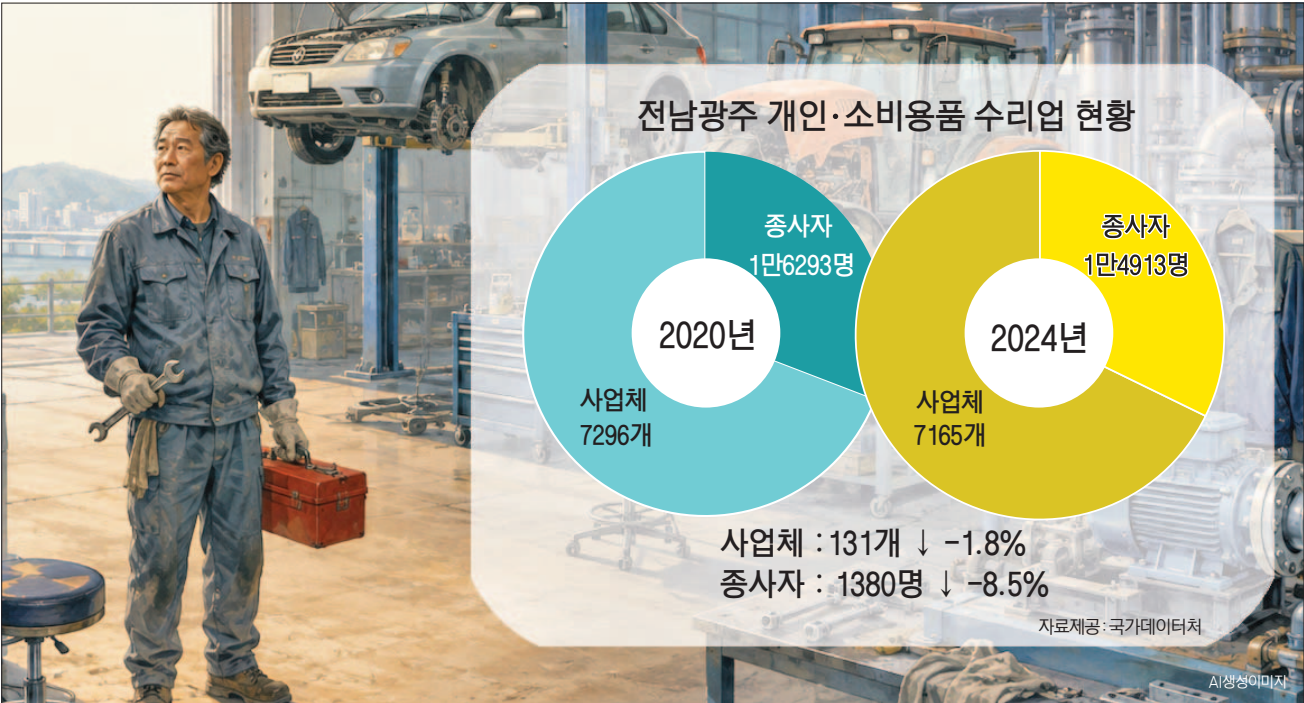
5년 사이 사업체 수는 131개 감소하 는 데 그쳤지만 종사자는 1380명 줄어 약 8.5% 감소했다. 업체 수는 유지되고 있 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 인력은 빠르 게 줄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리업이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요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업종이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자동차 고장, 가전제품 이상,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은 소비와 산업 활동이 지속 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와 서비스 환경 변화로 소규모 수 리업체들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제조사 중심의 서 비스망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 운영 형태 의 수리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제품 가격 하락과 수리 비용 상승 이 맞물리면서 ‘수리보다 교체’를 선택하 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수리업의 역할이 단순 생활서비스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광주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정비와 유지보수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남 역시 조선·철강·석유화학· 농기계 등 제조 현장에서 설비 관리와 기계 수리 분야의 중요성이 높다.

제조 현장에서 설비 고장은 곧 생산 차 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유지보 수와 전문 기술자의 역할은 기업 경쟁력 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받는다.

특히 전남 농촌 현장에서는 수리 기술

자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크게 나타 나고 있다.

농기계는 농업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트랙터와 콤바인, 관리기 등이 멈출 경우 농민들의 작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수리업 종사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품 가격 상승 등 운영 부담도 커

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기술력과 단골 고객을 기반 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리업 관계자는 “부품 가격과 운영비는 계속 오르는데 고객 입장에서 는 수리비 인상을 부담스러워한다”며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더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리업을 단순 서비스업이 아닌 지역 생활과 산업을 지탱하는 기반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 기술인력 양성,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확대, 디지털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 도입, 전기차·스마트 설비 등 미래 기술 대응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수리업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지역민의 생활과 기업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필수 산업이다”며 “기존 기술을 이어갈 인력 양성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현대차그룹, 공동주택서 주차로봇 실증 추진

주차면 부족·혼잡·안전 등
스마트 주차 기술 해결 목표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주택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에 나선다. 실증을 통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주차면 부족과 혼잡, 안전 문제를 로봇 기반 스마트 주차 기술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현대건설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국토부의 승인 및 국토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차량 보유 증가와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 집중으로 지하주차장 공간 부족과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직접 빈 주차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와 차량 공회전이 발생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로봇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공동주택 등에 적합한 스마트 주차 운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지하 1층 주차장 내 총 53면 규모의 별도 구역에서 현대위아 주차로봇 2세트를 활용해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대위아의 주차로봇은 두께 110mm의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



현대차그룹의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현대건설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로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차로봇은 장착된 라이다 센서를 통해 차량 바퀴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최고 속속 1.2m의 속도로 최대 3.4t의 SUV 차량까지 자동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후좌우 모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주차가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해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운전자나 힐스테이트 내 지정된 입출차 구역에서 하차한 뒤 키오스크 또는 공동주택 월패드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주차로봇이 차량 하부로 진입해 타이어를

감지하고 들어 올린 뒤 빈 주차면까지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한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빈 주차 공간을 탐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동일면적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향상된 주차 수용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해 주차장 내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불필요한 차량 이동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실증 기간 동안 차량 1대 당 입·출차 소요시간, 이용자의 실제 대기시간, 주차 성공률, 로봇 가동률, 월간 수행 건수, 주차면 효율 개선율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로봇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상환경 모델을 구축해 주거, 상업, 업무, 교통거점, 공공, 문화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주차 공간 레이아웃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스마트도시 시대의 새로운 주차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다.

이어 “공동주택이라는 실제 생활 환경에서 주차로봇의 운영 안정성,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향후 국내의 다양한 도시 공간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먹거리 ‘비상’…리콜 전남 19건·광주 5건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보상 실적…24건으로 증가
식품·축산물 중심 이뤄져…“소비자 안전 관리 강화”

전남광주지역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에서는 지난해 모두 19건의 리콜이 이뤄졌으며, 광주에서도 5건이 발생하는 등 지역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광주지역에서 실시된 리콜은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경우 2024년 11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8건 늘었다. 광주는 같은 기간 1건에서 5건으로 증가했다.

전남의 지난해 리콜 19건 중 리콜명령이 3건, 리콜권고가 15건, 자진리콜이 1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리콜명령 없이 리콜권고 4건, 자진리콜 1건이 이뤄졌다. 특히 전남광주 지자체에서 실시한 리콜은 식품과 축산물 등 먹거리와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리콜의 상당수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먹거리 상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에서 실시된 리콜은 모두 26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한 규모다.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9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진리콜 865건, 리콜 권고 88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콜권고는 전년 630건에서 886건으로 256건(40.6%)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308건, 자동차 300건, 의약품 2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리콜은 지난해 254건으로 전년 104건보다 무려 150건(144.2%)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 확대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지역 소비자들이 접하는 위해제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실제 지난해 관계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모두 1만2902건으로, 2024년 1만1436건보다 1466건(12.8%) 증가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제품이 2172건, 국내 플랫폼의 구매대행 제품이 1만730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채용…규모·예산은 축소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채용 규모와 예산은 줄어든 반면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뽑는 ‘롱테일(Long Tail) 채용’이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4일부터 31일까지 기업 인사담당자 569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78.7%였다.

이 가운데 ‘부서·직무 단위 일부 총원’이 61.2%, ‘전사 차원의 채용’은 17.6%로 집계됐다.

채용 규모는 줄었다.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으로 ‘10명 이하’를 꼽은 기업이

78.9%로, 전년 조사보다 18.4%p 늘었다. 11~30명(8.6%), 101명 이상(2.8%)은 각각 10.2%p, 4.5%p 감소했다.

예산도 함께 축소됐다. 하반기 채용 예산으로 ‘300만원 미만’을 계획한 기업이 74.3%로 전년 대비 37.5%p 증가했다. 이 중 ‘100만원 미만’이 37.2%였고 ‘집행하지 않는다(0원)’는 응답도 22.8%에 달했다. 반면 ‘1000만원 이상’ 집행하겠다는 기업은 13.2%로 24.3%p 줄었다.

채용 시기도 특정 시즌보다 상시 채용으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하반기 상시 채용’이 42.6%로 가장 많았고 7~9월(29.2%), 10~12월(17.4%), 미정(10.8%)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진공, 유망 중소기업 최대 20억 성장자금

상환전환우선주 등 지원…비수도권 자금조달 실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민간 금융만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최대 20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의 정책자금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20억원이다. 중진공은 특히 비수도권 기업과 창업기업 등 민간 투자자 금융기관 대출만으로 충

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건설자재 제조기업 ㈜에프알텍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활용해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확보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에프알텍은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을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으로 지원받아 기존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신소재인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보강재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는 지원자금을 바탕으로 제품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거래처를 확보해 창업

초기 1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향후 해외법인을 설립해 해외시장까지 사업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정책금융”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지속해서 발굴해 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연중 운영되며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9@gwangnam.co.kr